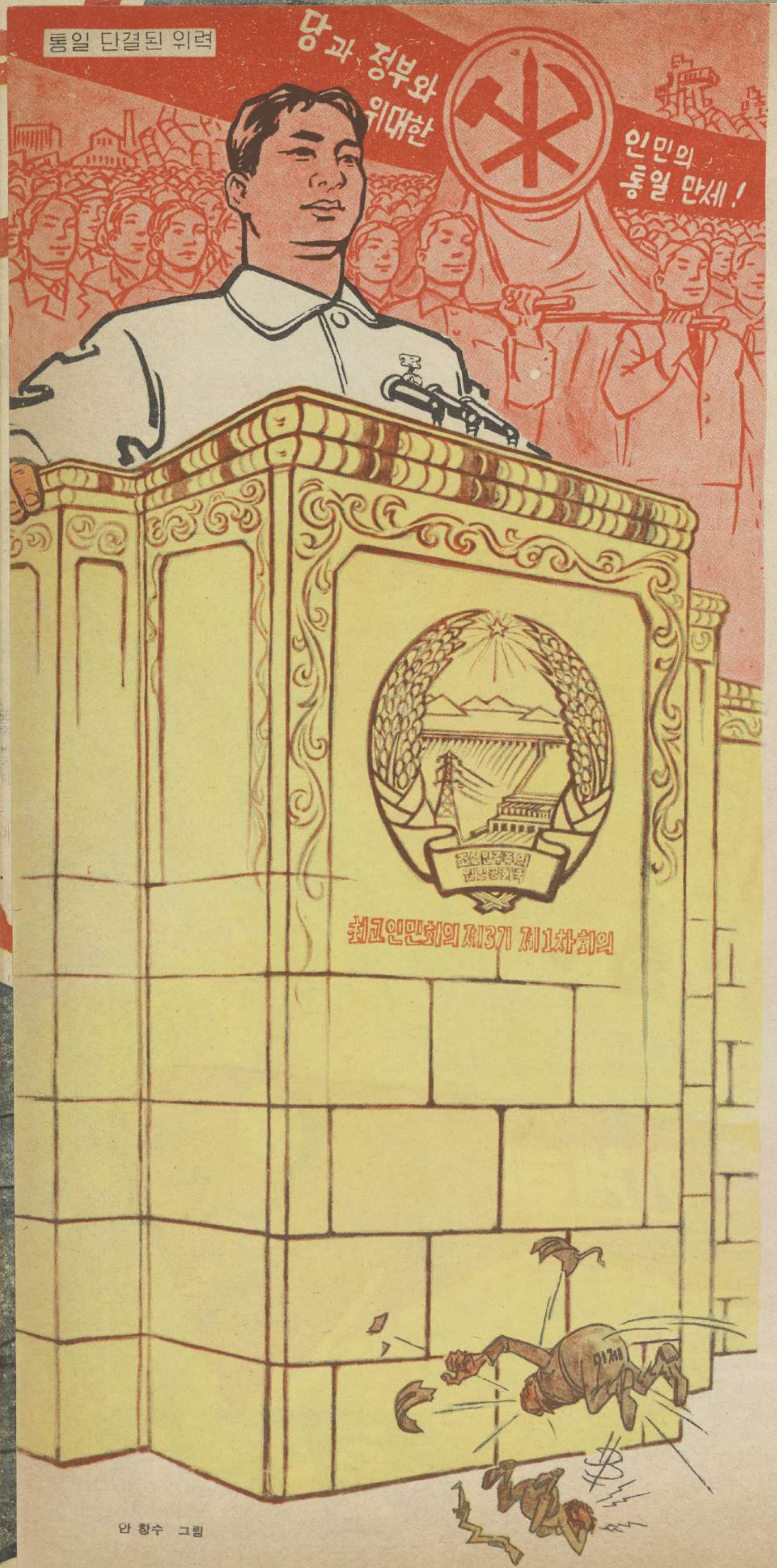
안 창수 그림

1962년 11월호 (159)

95
06-0730
WF16
3 - JUL 31
Copy ______ 1963



안 창수 그림

오늘의 《1211고지》

천 무삼

돌격대

수령의 현지 교시를 받들고 강철 고지 전사들이 《120 일 전투》승리를 위하여 총돌격에로 일떠선 어느 날 아침, 송림의 산정들에는 아직도 간밤에 있은 가렬한 전투를 말해 주는 검붉은 연기가 자욱하게 끼였고 화광이 번쩍이고 있었다.

이 곳 저 곳에서 이따금 다이나마이트 폭음이 들리는데 그것은 《120 일 공병 청년 돌격대》가 수백 톤에 달하는 파철을 해체하는 소리이다. 지난 시기엔 어쩔 수 없는 거물로 여겨 오던 파철덩이들이 《120 일 공병 청년 돌격대》의 전진 앞에 굴복하고 말았다. 이 돌격대는 3만여 톤의 파철을 수집함으로써 《120 일 전투》승리의 길을 개척하는 돌격대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1211 고지》에는 26 개의 돌격대가 《120 일 전투》의 진두에 서서 수령의 교시 실천에로 청춘의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싸우고 있었다.

과학적인 전투

용광로의 점토포가 목표물을 향해 신속히 움직이며 백발 백중의 명중탄을 퍼붓자 불꽃 튀는 새 날의 새 전투가 이 곳에서도 벌어졌다.

용광로의 전역에 걸치는 전황은 19종에 달하는 124대의 자동 조절 기구들과 계기들을 통해서 참모부에 보고되고 조절되는 것이였다. 용광로의 상태를 료해한 사령원들은 거듭되는 전투 때마다 강철 전사들을 찾아 가서 용광로의 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며 어느 고리가 약하고 어느 고리에 력량을 집중해야 다음 전투에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더 큰 전투 성과를 거두기 위한 새 전투에로 조직 동원한다.

얼마 전에 2 호 청년 용광로에서만도 1,029 톤의 선철을 뽑는 기적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전투 성과의 요인은 자동 조절 기구 및 계기들을 완비하고 최신 기술로 과학적인 전투를 진행한 것과 더불어 예비 부속을 3 개월분이나 마련하고 설비 관리를 잘한 데 있다.

지금 이 곳 용광로에서는 1,700 톤을 정상화 하기 전에는 로 곁을 떠나지 않을 결의로 집단적 영웅주의의 위훈을 세우고 있다.

강철 1,200 톤 정상화에로 육박

강철 직장에서 평로는 《120 일 전투》의 승리를 좌우하는 《화점》이다.

그런데 종전까지만 하여도 평로들은 몇 차례의 전투를 겪고 나면 소보수나 중보수를 해야만 다시 전투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계로 다섯 개의 평로가 전투 때마다 모두 일제히 화염을 내뿜을 수 없었다.

이것은 전투에서 어찌 평로들에 파손이 없겠는가 하는 것이 《철칙》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철칙》은 《120 일 전투》의 불'길 속에서 완전히 불타버렸다.

로벽을 다짐식 방법으로 축조하여 140 회의 전투를 소보수, 중보수 없이 진행한 4 호 평로의 경험이 일반화 되자 지금은 모든 평로들이 일제히 화염을 내뿜게 되였다. 결과는 1,278 톤의 강철을 뽑는 기록을 창조하였다. 물론 이런 기록적 성과는 《포위식 장입 방법》과 《교차식 장입 방법》으로 출강 시간을 단축한 것과 장입기와 기중기들에서 일상적인 점검 보수를 잘 하여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과 떼여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들은 강철 1,200 톤을 정상화 하기 위해 진공적으로 육박하고 있었다.

《1211 고지》의 자랑

《1211 고지》 강철 전사들이 《120 일 전투》의 나날들엔 아름다운 소행의 꽃이 시간의 흐름과 날이 바뀜에 따라 계속 피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해탄 직장의 2호 가열로 《강 호영 청년 돌격대》조 준용, 민 병수, 김 세홍 등 8명의 청년들이 가스 공급관이 메여서 《120 일 전투》에 장애가 조성되자 이들이 좁고 고열로 해서 몸을 움직이기 곤난한 관 속으로 들어 가 해체 작업과 청소하는 전투를 진행한 이야기며, 《마 동희 청년 돌격대》윤 광훈 동무가 54 키로그람의 파철덩이가 석탄에 파묻혀 배합기로 들어오는 것을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건져낸 이야기며, 휴가 기간을 바쳐 15 톤의 파철을 수집한 1 원로 직장의 유 정근 동무의 미행 등은 《1211 고지》강철 전사들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또한 《1211 고지》에서 벌어진 《문제 풀이 경기》와 《파철 수집 경기》, 파철을 메고 진행되는 아침《달리기 운동》 등도 《120 일 전투》의 승리를 촉진함에 이바지한 자랑이 아닐 수 없다.

× × ×

지금도 수상 동지의 현지 교시를 받든 《1211 고지》는 용광로 속의 쇠'물마냥 이글거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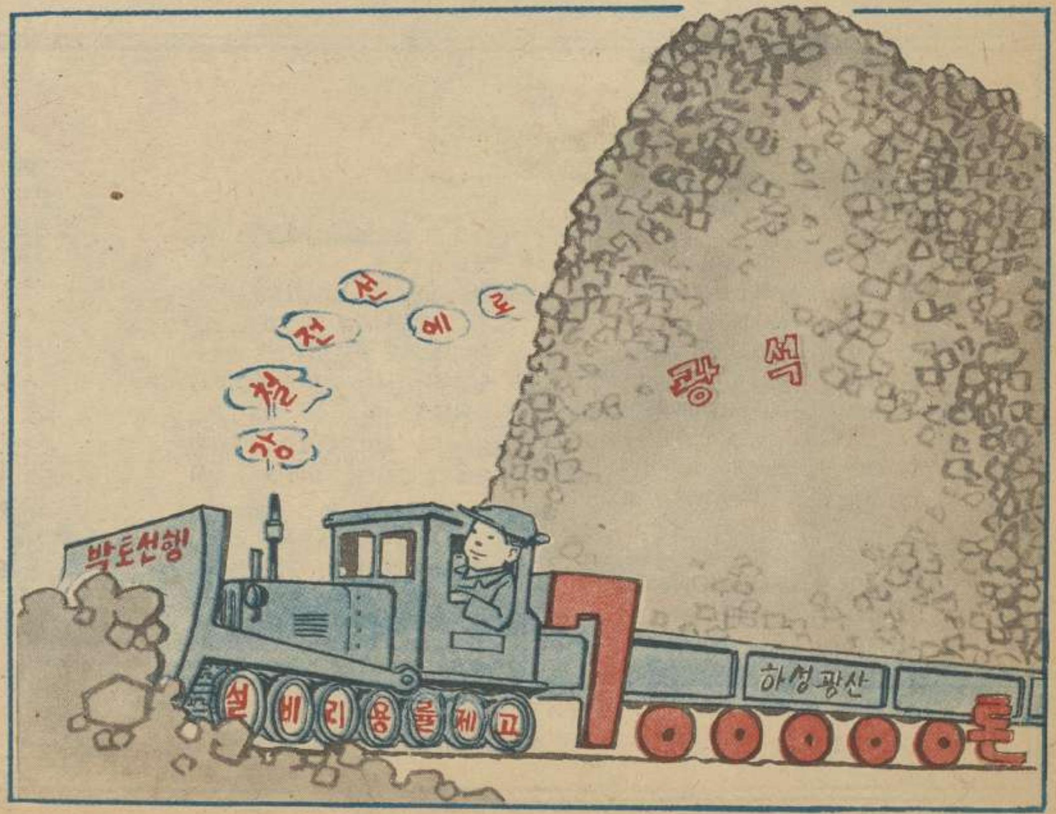
평로에서 불타 오른 때아닌 밤 노을! 그것은 정녕 《1211 고지》강철 전사들의 심장이 불타는 충성의 화광이 아니겠는가!

그렇다! 우리의 끓는 피가 가슴에 뛰는 한 강철의 《1211 고지》 그것은 영원히 승리의 고지로 남아 있을 것이다.

결승점에 다달았다

안 창수 그림

《1211고지》 지원



안 창수 그림

천 석 군이 부럽잖다

해마다 풍년 들어 늘어 가는 우리 살림
천석군도 부럽잖고 만석군도 부럽잖네
얼씨구 절씨구 로동당 시대 좋구 좋네

박 승희 그림

일산화 탄소

로인 얘. 석탄내가 다 빠졌는데 이제는 공기창을 닫아라.

손자 할아버지 석탄내에 중독되시면 어떻거려구 그러세요.

로인 연기도 없는데 무슨 석탄내가 난다구 그러냐.

손자 할아버지 석탄 연기엔 일산화탄소란 색도 없고 특별한 냄새도 없는 중독 기체가 있어요.

로인 무슨 소린지 원. 색도 없고 냄새도 없는데 뭣에 중독 된단말이냐?

손자 일산화탄소란 건 보이지 않는 기체라니까요!

로인 됐다, 그럼 공기창을 닫고 불을 떠 놓으면 될 거 아니냐.

손자 불은 왜 떠놔요?

로인 불을 떠 놓으면 석탄내를 안 먹는다지 않던.

손자 원 할아버지두. 일산화탄소는 물에 잘 용해되지두 않구 또 물과 화학 반응도 일으키지 않는대요.

로인 도대체 일산화탄소가 어떻게 됐다는거냐?

손자 할아버지 그건 말이에요 사람이 숨쉴 때 공기하구 같이 들어 가서 신선한 공기인 산소를 몸에 퍼주지 못 하게 하기 때문에 숨쉬기 곤난하게 만들어요. 나중에는 숨을 전연 못 쉬게도 만들구요.

로인 옳아. 그래 생명이 위험하다는 거구나!

손자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기창을 열어 놓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 오게 해야 해요. 그리고 이따금 방문을 열고 공기를 갈아 넣어야 하구요.

로인 거참. 들구보니 환기를 자주해야 하겠구나!

현장에서 살아야겠군

천 무삼

△자재 공급원이 지나 가는데 멀리서 운전수 1이 부른다.

운전수 1-자재 공급원 동무! 자재 공급원 동무!

자재 공급원-아 수고하누만 운전수 동무.

운전수 1-인사 받으러 온 게 아니요.

자재 공급원-아니 무턱대고 성 낼건 뭐요?

운전수 1-당에선 건설장의 위치와 공정 순위를 정확히 타산한 후에 수송 조직을 빈틈 없이 맞물리게 해서 수송 기재들의 가동률을 높이라구 하지 않았소?

자재 공급원-그런데?

운전수 1-그런데 왜 공차 운행을 시킵니까?

자재 공급원-공차 운행이라니?

운전수 1-오늘 1 소대에 기와 한 차를 가져 가라구 했지요. 그런데 거기선 기와가 산'더미처럼 쌓였으니 말입니다.

자재 공급원-그럴리 없소. 동무가 딴 소대에 갔던 모양이요.

운전수 1-원 정신을 어디다 뒀다구 딴 소대를 찾아 가겠소.

자재 공급원-내가 어제 아침에 나가 봤을 때두 기와가 거의 떨어져 가던데…

△운전수 2 가 이때 자재 공급원을 찾아 왔다.

운전수 2-아니. 이거 공차 운행을 시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재 공급원-원. 동무도 공차야?

운전수 2-2 소대에선 석비레가 필요 없다구 하니 돌아 올 수 밖에요.

운전수 1-이젠 어디로 갈가요?

자재 공급원-4 소대로 가져 가오.

운전수 2-또 공차 운행을 하면 어떻거랍니까?

자재 공급원-어제 실정을 료해하고 하는 건데 틀림 있겠소.

운전수 1-1, 2 소대도 어제 료해했다면서요?

자재 공급원-좋소. 그럼 자동차를 타고 1.2 소대로 가 보기요.

△이때 속보원이 지나간다.

속보원-어디로 가십니까?

자재 공급원-1 2 소대로 가오.

속보원-새로운 발견 때문에요?

자재 공급원-새로운 발견이라니?

속보원-1 소대에선 농민들과 련계를 잘 맺어서 돌기와를 자체의 힘으로 채취하여 지붕재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 소대에선 기초 작업을 하다가 석비레를 발견하구요.

자재 공급원-허참. 그러니 어제가 옛날인걸…

운전수 1-그럼 우린 4 소대로 가지요.

자재 공급원-가만 같이 가기요. 이젠 매일 현장에서 살아야겠군.

가을갈이가 끝난 포전에서

풍작 -이렇게 자급비료와 객토를 많이 내면 나쁜 땅이라고야 없지. 내가 자라던 땅보다 더 좋아지겠는걸…

박 승희 그림

풍서 림산 사업소에서는 생산의 집중화를 실시함으로써 설비와 로력의 분산을 방지하고 그것을 생산의 증대를 위하여 가장 효과 있게 리용하여 계속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야! 생산량이 부쩍 늘었구나…
—그건 생산의 집중화를 실시했기 때문이야

조 명식 · 송 시엽 그림

만화통신

백 인균 그림

신포 선박 수리소에서는 예비 기관을 확보하고 부속품 생산을 선행시켜 선박 기관을 륙상 조립함으로써 선박 수리 기일을 종전보다 훨씬 앞당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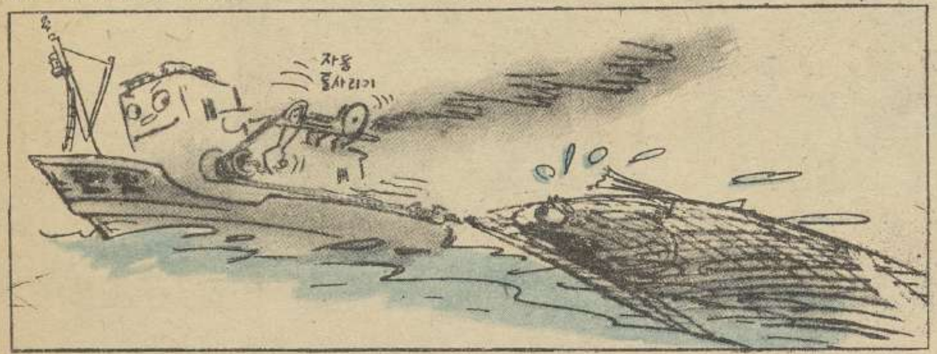
대기병들

—어서 올라 오시오.
예비 기관, 예비 부속품이 확보돼 있으니 인차 《치료》해 드릴 수 있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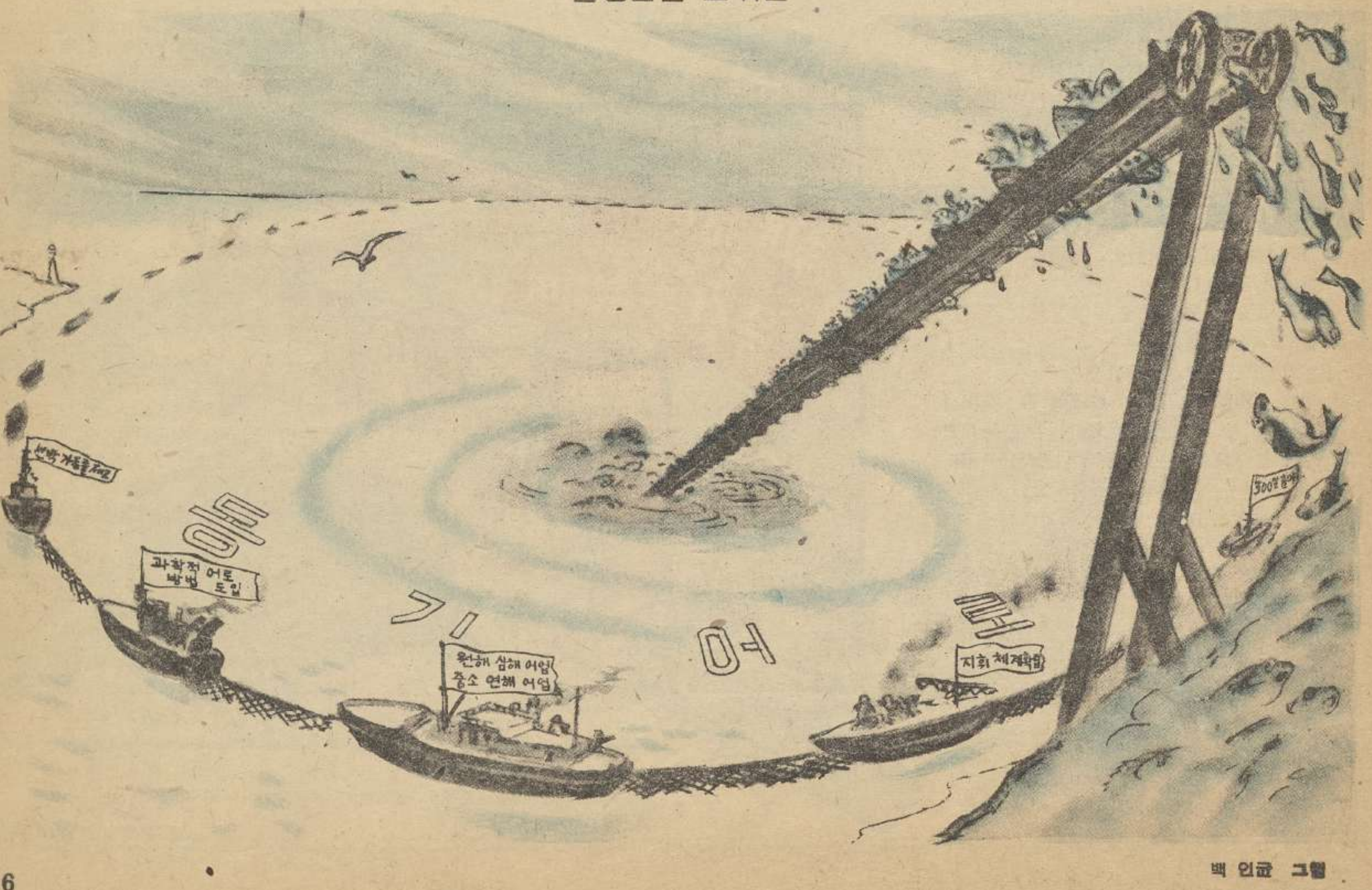
고기 잡는 마음으로

전진 수산 사업소에서는 줄사리기 기계를 도입 일반화함으로써 일을 헐하게 하는 동시에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고 있다.

힘내기



철통같은 포위진



백 인균 그림

고맙습니다

- 룡원 광산 로동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

원 도명

우리는 어제 밤 여기 제철소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들 룡원 광산의 철광석 일동은 제철소 로동자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우리들을 강철 고지 전선에 보내 주기 위하여 주야로 분투한 당신들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사실 감투봉과 철석봉의 광맥속에 묻혀 있을 때만 해도 우리는 이런 보람찬 날을 이렇게 가까이 보리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막장에서 먼 거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20 일 전투에 참가한 당신들 붉은 광부들은 우리를 이처럼 빨리 세상에 나오게끔 도와 주었습니다. 요란한 발파 소리에 놀라 잠을 깨여 채광 막장에 떨어졌을 때만해도 우리는 어떻게 되여 이다지도 빨리 우리 차례가 되였는지를 몰랐습니다. 잠시 후 큰 쇠바가지가 우리를 긁어 광차에 실어 주었습니다. 갱구밖을 나올 때까지도 우리는 아무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갱구 밖을 나와 큰 속보가 나붙은 걸 보고는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스크레빠 도입으로 철광석 생산에서 혁신!》

이런 제목 밑에 속보판엔 김 용수 천리마 소대에서 창안한 스크레빠 도입으로 철광석 생산에서 2 배의 능률을 올렸다는 소식이 나붙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속보판에는 《청년갱에서는 급속 전진 장벽식 채탄법과 경사 보충식 채광 방법 등 선진 채광법을 도입하여 착암기의 대당 락광량을 종전의 35 톤으로부터 85 톤, 최고 100 톤으로 높이는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휴가 도중에 120 일 전투 마당으로 달려 나온 리 창식, 현 용철 동무들은 오늘도 채탄장의 선두에 섰다!》

《운반 및 설비 부문에서 로력과 자재를 합리적으로 동원 리용하여 청년갱 입구에서 철도역에 이르는 삭도를 일제히 보수 정비함으로써 하루 운광량을 400 톤으로부터 600 톤이상으로 높이게 하였으며 운반 선로를 보수 보강하고 전차 대수를 증가하는 한편 전차의 견인 능력을 제고했다!》

《김 보부, 곽 경희, 최 계숙 등 50 여 명의 가정 부인들이 120 일 전투를 지원!》 등 허다한 혁신적인 사실들이 게재되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우리를 강철 고지로 빨리 보내기 위한 로동자들의 붉은·심정의 일단들이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제철소 시료공들이 차판에 올라 오더니 시료를 따 가지고 내려 갔습니다. 갑자기 차판 안이 소란해졌습니다. 우리 동무들이 품위가 낮아 제철소 동무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어쩌나 하고 근심들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룡원리 역을 떠나기 전에 룡원 광산 분석실 동무들이 우리에게 준 높은 평가 즉 품위 50%라는 수'자를 조금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품위를 높여 주기 위한 룡원 광산 광부들 당신들의 노력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 자신이 누구 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곁에는 《포로암》이라고 불리우는 큰 석회암 덩어리가 섞여 있었는데 우리는 속으로 저것들과 함께 락광이 되여 한데 섞이면 어쩌나 하는 위구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왜냐 하면 철광석인 우리와 막돌인 석회석이 한데 버무려지면 품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김 용수 천리마 소대의 착암공들은 어떻게 천공을 했는지 우리가 락광되기 전에 석회석 덩어리만 따로 먼저 떨궈 놓고 우리를 떨궈 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멀쩡한 철광석 덩어리만이였지요. 그런데도 폐석이 섞일가봐 로동자들의 감시가 이만저만이 아니였습니다. 우선 운광공이 막돌을 골라 내고 베르트콤베야 운전공이 골라내지요. 처녀 콤베야 운전공 강 남자 같은 동무는 어떻게나 눈을 밝히고 폐석을 주어내는지 석회석덩이들이 얼굴에 진흙을 잔뜩 묻혀 가지고 위장을 하고 나오면서도 벌벌 떨었답니다. 그러고도 우리는 다시 전문적으로 폐석을 제거하는 사벽 공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막돌이 섞일 수 있겠어요. 한참 후에 제철소 시료공이 다시 나왔습니다. 우리는 잠시 숨을 죽이고 그의 얼굴 표정만 살폈습니다. 그는 만족스럽게 웃더니 《국가 품위보다 3%나 높소. 그러니 용광로에서도 생산이 부쩍 올라갈거요!》 하고 용해공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6 개 고지 점령을 위한 120 일 전투에 참가하게 된 것만해도 기쁜 일인데 광석 품위가 높아 선철 생산이 부쩍 올라가게 되였다니 그 이상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우리를 이 보람있는 전투에 참가케 해 주었으며 높은 품위의 철광석으로 보장해 준 당신들 룡원 광산의 로동자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품위 높은 철광석을 더 많이 캐 보내여 강철 고지 우에 승리의 기를 꽂기 위한 120 일 전투에 동원된 강철 고지 전사들을 더욱 기쁘게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용수의 참된 생각

함남 광천군 룡덕리
윤 웅준 그림

대합실에서 (무던이의 수첩에서)

조 명식 그림

안 창수 그림

속담풀이

비위가 노래기 회쳐 먹겠다

서울 도장궁 앞에 사는 권 모라는 령감이 방에 앉아서 신문을 읽고 있는 데 때마침 7촌 조카뻘 되는 판사가 들어왔다.

령감은 신문에서 눈을 떼고 조카놈을 훑어 보면서 다짜고짜로

《이놈, 너희들 비위야말로 노래기 회쳐 먹겠구나》 고 했다.

조카놈은 어리둥절해서 벌뚱히 앉아 있는데 령감은 눈알을 부라리며 말을 이었다.

《세 사람만 모여 앉아도 집회 위반이라고 해서 가두어 넣는가 하면 제 할애비 제사 지내는 것까지도 허가를 맡아야 하는 세상에… 더구나 미국놈들이 사람을 막 죽여도 찍소리 한 마디 못하는 주제에 무슨 《인권 옹호 법안》과 《인권 침해 사건 처리 규정》을 만들어 낸단 말인가? 응?》

령감은 쓴맛을 다시며 돌아 앉는다.

판사놈은 말문이 막혀 아무 소리도 못 하고 밖으로 나가고 말았다.

개구멍으로 통영갓을 굴려 낼 놈

통영은 경남에 있는 갓의 산지이다. 이 속담은 교묘한 수단으로 사람을 협어 먹는 것을 말한다.

군사 파쑈 분자들은 제손으로 외래품을 끌어 들여 놓고도 《민족 경제 자립을 위한다》는 구실 하에 《특정 외래품》을 단속하여 중소 상인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먹고 있다.

지난 9월 1일부터 5 일간만 해도 250명을 검거하고 129 만9천 106 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압수했다 하니 철부지 군사 깡패들이야 말로 개구멍으로 통영갓을 굴려 낼 놈들이 아닌가!

«새조치»

원 도명

부산시 경찰서에 탈세 행위를 한 한 상인이 붙들려 들어 왔다. 경관들은 그의 죄행을 두고 벌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벌금을 얼마나 부과시키느냐 하는 데서 옥신각신 하였다.

«이전 림시 조치법에 걸리는 거니까 1만 원 정도는 먹여야 하오!»

«김 군은 옛말을 하고 있군. 그 후에 나온 긴급 조치법이란 건 못 봤군그래. 2만 원은 떼내야 하오!»

«그럼 특별 조치법이란 건 뭐요? 난 그게 지금 쓰는 법인 줄 아는데?»

«아니, 그 우에 긴급이란 감투가 안 붙었습디까? 긴급 특별 조치법 그것이 아마 그 후에 나온 걸거요?»

«이런 것도 있지 않았소. «특별 긴급 조치의 개정에 관한 건» 문장이 긴 걸 보니 이게 제일 최근에 나왔으리라고 보는데!»

«아니요, 특별 림시 조치법이 제일 나중에 나왔을 거요!»

경관들은 서로 갑론 을박 하다가 서울 경찰국에 물어 보기로 했다.

한 놈이 경찰 전용 비상 전화국에 대고 서울 경찰국을 불렀다.

«여보세요? 서울서 내려 보낸 조치 가운데 긴급 조치가 있고 특별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림시 조치와 긴급 특별 조치라는 것도 있고, 그 밖에 특별 림시 조치라는 것도 있고 특별 림시 긴급 조치라는 것도 있고요… 어느 조치를 집행해야 하느냐 말입니다!»

그러자 수화기 안에서는 이런 말이 울려 왔다.

«방금 새 조치를 취했소. 방금 내려 보낼테니 그걸 집행해야 하오. 특별 긴급 조치의 개정에 관한 건 중 개정 조치법이란거요!»

호랑이 편력기

(황룡사편)

까치 떼가 날아 들다가는 부딪쳐 떨어지군 했다는 솔거의 명화 《송화》로 하여 세상에 이름 있는 황룡사! 황룡사를 찾아 사흘 밤 사흘 낮을 헤매다가 나는 기진맥진하여 여기 길 한판에 개탄하며 앉았노라.

남대문 헐어내듯 황룡사를 헐었는가?! 아니면 미국 날강도놈들의 불장난에 재더미로 변했는가?!

길 가는 사람들의 말을 듣자면 경주시 구황리에 황룡사가 있기는 있다는데 《앙상하게 남은 표말》밖엔 찾을 수 없었으니 이 어인 조화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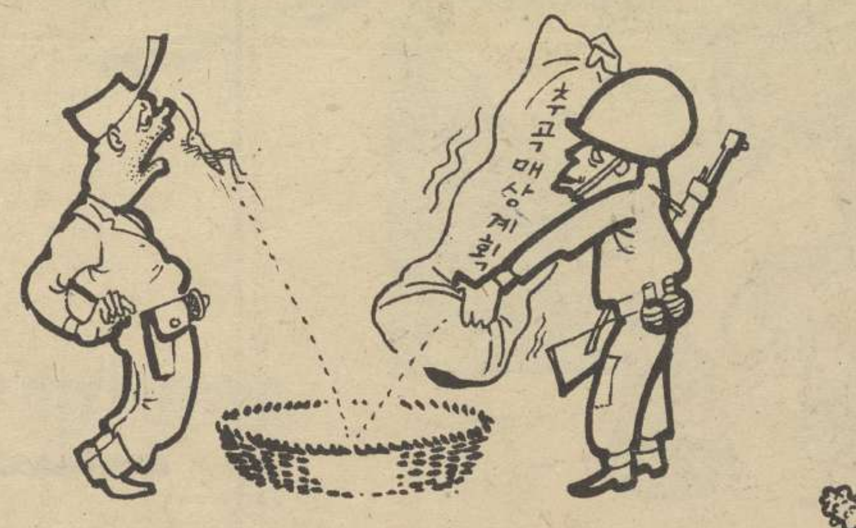
후에 《령남 일보》가 전한다는 말을 들어보니 사래는 이러하다.

황룡사는 지금 《콩밭 속에 파묻혀 버린 채 그 흔적조차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그래서 황룡사를 찾던 사람들은 콩밭 속을 헤매다가 《이마 살을 찌프리고》 돌아 간다고. 그렇다! 미국놈들이 날뛰는 남반부 땅에서, 《군사 정권》의 《공보 실장》이란 놈까지 우리의 귀중한 문화 유물들이 사람들을 《봉건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헐어 버려야 한다고 공공연히 지껄여 대는 남조선 땅에서 황룡사라고 무사할 수 있겠는가!

미국놈들을 몰아 내고 조국을 통일해야 우리의 문화 유물도 그 빛을 낼 것이다.

남조선의 이모저모

《개 업》



—실적은……으악!

최근 남조선 보도들에 의하면 군사 통치배들은 얼마 생산되지도 않는 석탄 중에서 군수용탄 《할당》에만 혈안이 되고 민수용탄은 제대로 공급조차 하지않고 있어 금년 월동 연료난은 더욱더 암담하여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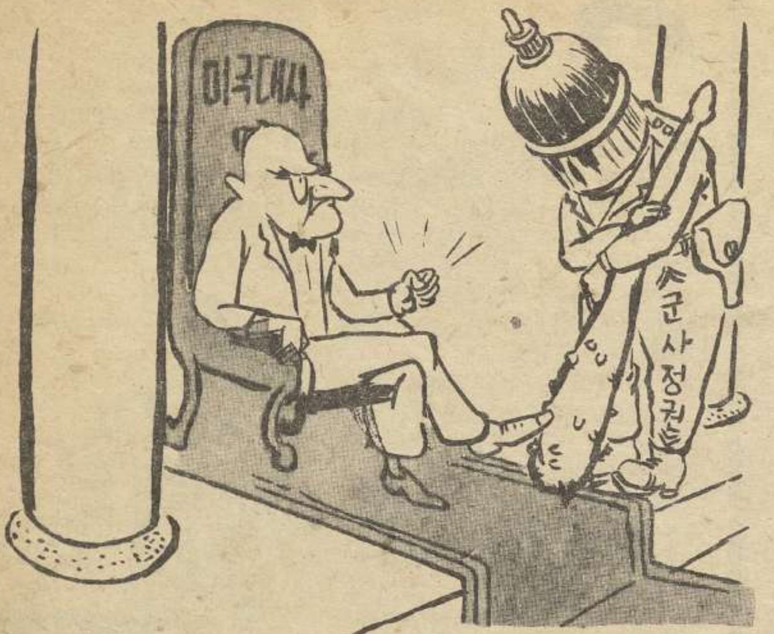
—이렇게 더운데 무슨탄이 필요한가…에 덥다

《벌과금 징수 강조 기간》

군사 통치배들은 11월을 《벌과금 징수 강조 기간》으로 만들고 1억 9천 7백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헐 벗고 굶주린 남조선 인민들로 부터 수탈하려고 날뛰고 있다.

최 영근 그림

《주한 미 대사관》



《유엔군 사령부》

《주한 미 경제 협조처》

군사 깡패들의 발광

서울 종로 네거리의 자그마한 벽돌집 담벽에 《한국 가족 계획 상담소》란 괴상 야릇한 간판이 나붙었다.

수 주일이나 가족들과 함께 쌀 구경을 못한 박 창순은 허둥지둥 이 《상담소》를 찾아 갔다.

《소장님, 저 같이 굶주리는 사람에게 무슨 방조가 있는가 해서…》

《알만하오, 문제 없소, 당신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군사 정권은 많은 자금을 투자했소… 에 우선 무상 혜택 대상자는 제1차로 3000 명…》

《옛? 무상 혜택이라니요? 정말 뜻밖인데요‥》

박 창순은 누더기 아니면 썩은 보리쌀이라도 좀 나누어 주려나 하고 방안을 살펴보았으나 그런 것은 그림자도 없고 다만 방안 한쪽 구석에 수술대와 그 우에 메스통, 붕대가 있고 그 곁에서 얼굴이 창백한 간호원이 졸고 있었다.

《여봐, 뭘 그리 살피고 있소? 어서 이 수술대에 누으란 말이요!》

《아니, 수술을 하겠다구요? 무슨 수술인데요…》

《당신의 못 사는 리유가 딴데 있는게 아니요. 단지 사람의 수가 많기 때문이요, 그러니 인공적으로 아이를 낳지 못 하게 하는 방법을 적용해야 하오!》

《뭐? 뭐요?》

그는 깜짝 놀라면서 의자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했다.

《여보시오, 당신이 수술을 하지 않고 가겠다는 것은 굳이 말리지는 않겠소만 상담한 값은 내고 가야지요!…》

조선은 조선 인민의 것이다
미제를 몰아 내자!

조 명식 그림

출마 준비

남조선 군사 파쑈 도당은 《민정 복귀의 귀틀을 마련》 한다고 《헌법안》 까지 미리 꾸며놓고는 이를 강권으로 통과시키려고 서두르고 있으며 한편 저들의 이른바 《출마》에 대하여 로골적으로 떠들어 대고 있는 등 군복을 평복으로 갈아 입고 계속 친미 친일 매국 행위와 파쑈 테로 통치를 감행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박 승희 그림

《특별 기자 회견》

리 찬철

얼마전 군사 정권 《공보실》에서는 《특별 기자 회견》이 있었다.

갑자기 불려 온 기자들은 또 무슨 《특종 기사》 감이나 있나 하고 수군거리고 있었다.

《여러분을 부른 것은 다름이 아니라 대통령 출마와 관련하여 "민의" 를 알리자는 것이요. 전국 각지에서 보내 온 편지가 태산처럼 많은데 그 중 경상남도 밀양군 문전리에 사는 김 영식씨가 보낸 편지를 대표적으로 읽겠소. 다들 조용하오‥ 에 〈박 의장을 군사 정권에 앉힌 것은 성태성의 지시에 의한 것이니 주저하지 말고 대통령에 출마해야 할 것이요.〉 이렇게 백성들이 그이의 대통령 출마를 권고해 왔소》 (공보 실장).

이 때 한 기자가 폭소를 터뜨렸다.

《아니 왜 웃소? 응?》

그러자 그 기자는 웃음을 거두며 말했다.

《바로 그 곳이 저의 고향인데 그런 사람은 없는뎁쇼!》

장내가 떠나갈듯한 폭소가 떠올랐다.

군사 파쑈 도당들이 최근에 본격적으로 추진시키고 있는 《헌법》 개악 시도와 《재건 국민 운동법》의 개조, 새 《정당법》 및 《민정 이양》 후에 집행할 《1964 년도 기본 정책》의 조작 시도 등 수다한 장기 집권 음모를 꾸며 놓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벌렸던 이 연극은 보기 좋게 밑창이 드러나고 말았다.

망할 세상 (20)
(50 년래의 대흉작)

박 승희 그림

강도들의 흥정

얼마전 미 국무장관 러스크와 일본 외상 오히라의 회담에서는 미일 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제멋대로 료리하고 나누어 먹으려는 흉악한 흥정을 했다 한다.

이것이야 말로 조선 인민의 자주권을 횡포하게 유린하는 파렴치한 날강도적 소행이 아니고 무엇인가?

천당과 지옥

곽 근 석

미국 뉴욕 만하탄 거리의 한 빈민굴에 사는 잭슨이라는 실업자는 혈액 은행 앞에 가서 줄을 섰다. 그는 피를 팔아야만 굶주리고 있는 자기 가족에게 빵 한 쪼각이라도 구해 줄 수 있었다.

이미 8 개월 간이나 실업을 당한 채 거리를 방황하여 직업과 먹을 것을 얻으려고 애를 썼으나 그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 갔다. 그가 혈액 은행을 찾아 간 것은 이 번이 처음이 아니였다.

그런데 그는 이 날 따라 특히 피곤함을 느꼈고 그 어떤 병마가 자기를 침습하고 있음을 알게 되였다. 그러나 그는 마음 속으로 생각하였다.

(참아야 한다. 나에게는 처와 애 셋이 있지 않는가. 그들은 빵 쪼각을 들고 들어 갈 나의 손을 쳐다 볼 것이니 참아야 한다.) 고

그는 너무나 기진 맥진하여 땅에 주저앉았다. 2 시간 후에야 피를 뽑을 차례가 되였다.

혈액 은행의 피의 상인이 주사' 대를 들었다. 그리고 잭슨의 얼굴을 보더니 그만 손을 내저었다.

《병에 걸렸습니다. 기침을 하는 것을 보니 폐병입네다. 당신의 피를 사면 우리는 손해를 봅네다. 나가시오. 빨리…》 잭슨은 자기 피를 뽑아 달라고 애원하듯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끝내 거절을 당하였다.

(어떻게 빈 손으로 집에 들어 간담) 그의 머리는 복잡하였다. 그러나 그는 용기를 내여 문을 열고 집에 들어 섰다. 그런데 설상 가상으로 의외의 일이 또 발생하였다. 그의 처가 자그마한 글쪽지를 남기고 음독 자살한 것이다.

《나는 당신의 피로써 계속 연명할 수는 없습니다. 원한 많은 사회를 등지고 먼저 떠납니다. 애들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차마 그럴 수 없어…》

애들은 울고 있었다.

잭슨은 자기 처의 시체 옆에서 긴 공개 서한을 썼다. 그리고는 그것을 가까운 신문사로 보냈다. 그는 서한 첫 머리에 자기의 처지를 서술한 다음 이렇게 계속하여 쓰고 있었다.

《이것은 나 뿐이 아니다. 눈코 뜬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처럼 미국에는 저녁을 먹지 못 하고 굶은 채 밤을 새우는 사람이 1천 7백만 명 이상이나 된다. 실업자들은 6백만 명에 달하고 그의 가족까지 합하면 2천 4백만 명 이상이라는 것을 신문들도 쓰고 있다. 나는 기능공이지만 실업을 당하고 있는데 무기능공들과 40 세 이상 사람들의 처지는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오늘 신문에도 시카고의 〈유에스 코페레이숀즈 사우스 웍스〉 공장에서는 6월 한달 동안에만도 제강공 1천 5백 명이 해고 당하였다는 보도가 실렸다. 어찌 이 뿐이겠는가! 미국 주민의 33%가 빈민굴에서 살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도 당신들은 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미국 사회는 극히 불평등하다. 모르간은 얼마 전에 하루 밤 사교춤 연회에만도 100만 딸라를 소비하지 않았던가 이 100만 딸라면 미국 보통 로동자 3천명 분의 1 년간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결국 미국 사회는 딸라만이 권세를 부리는 사회이다. 케네디는 피선될 때 선거자들 앞에서 근로자들에게 한 모든 약속을 저버렸다. 근로자들의 생활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말로써 근로자들의 배를 불려 줄 수야 없지 않는가? 하기는 케네디도 딸라의 덕택으로, 록펠러의 덕택으로 대통령까지 되였으니 딸라 앞에 더 충성을 다 하는 것도 응당할 것이다. 이렇게 쓰면 나에게는 또 스미스법과 맥카란법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본가들에게는 천당이요 근로자들에게는 지옥인 미국의 사회를 그대로 지속시킬 수 없다는 것만은 더 말해야 하겠다. 나는 케네디에게도 이런 글을 쓴 일이 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것들을 휴지통에 넣는 모양이다. 그래 나는 이 말을 온 미국 사람들에게 하고 싶어서 이 글을 신문사에 보내는 것이다》

이 날 백악관에서는 케네디의 《기자 회견》이 있었다. 케네디는 《미국이 자유의 나라 행복한 나라》 라고 또 나발을 불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후진 국가》들을 《원조》 하기 위하여 《평화군》 까지 파견하고 있다고 늘어 놓았다.

이 때에 《뉴스 위크》 지 기자가 일어 서더니 잭슨이 쓴 공개 서한을 읽고 케네디에게 물었다.

《당신도 이런 편지들을 받았을 것이다.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실정은 이러하다. 그러므로 지금 미국에는 당신이 말하는 평화군으로 하여금 빈민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수 없는가 하는 여론이 돌고 있는데 각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이 말에 매우 당황한 케네디는 옆에 서 있는 케네디의 세째 매부이며 《평화군》 책임자인 슬리붠을 쳐다보며 떠듬거렸다.

《그. 그것은…》

그러자 슬리붠은 케네디가 방금 전에 자기에게 《평화군이란 실속은 후진 국가들의 《개발》 을 돕는다고 표방하면서 미국식 생활 양식과 미국 문화를 류포시켜 숭미 사상을 주입하며 한편으로는 첩보 및 파괴 암해 활동을 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것을 당신들은 명심해야 하오!》 라고 하던 말을 되뇌일 것만 같아서 얼른 기자의 말을 받았다.

《에ー평화군의 활동은 대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 활동은 대외에 국한되는 것이다》

그러자 케네디도 살 수가 난듯이 슬리붠의 말을 앵무새처럼 되받았다.

《그렇지 평화군의 활동은 대외에 국한된 것이다》 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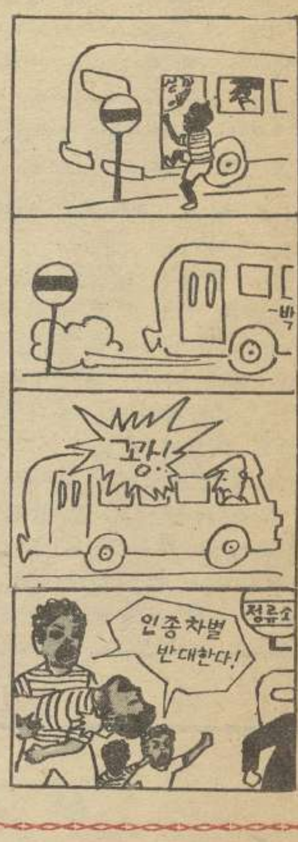
해답란

의 회답 만화를 여기에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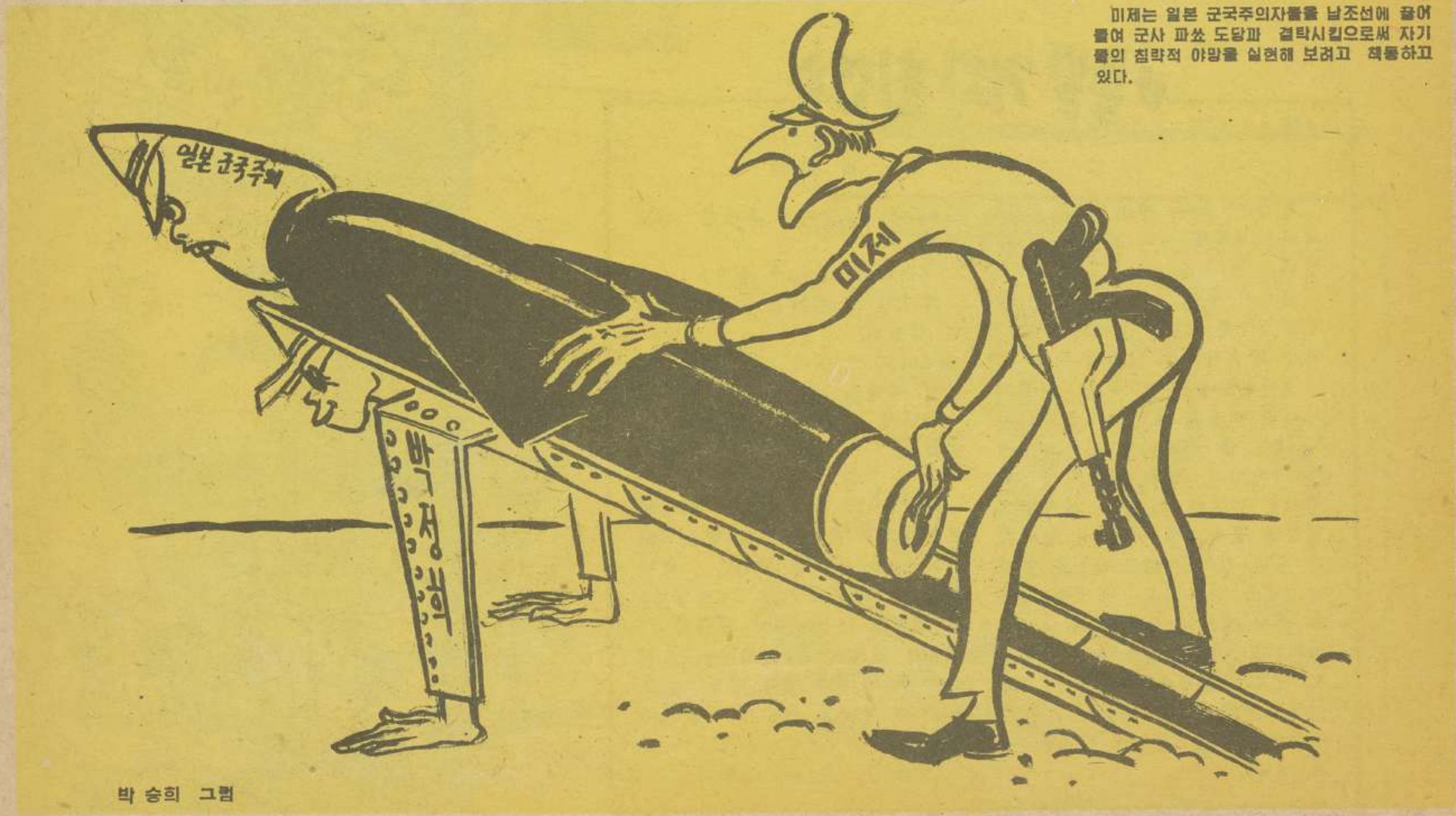
에서 평양 고등 광업 학교 三학년 김 금환 동무

부터 많은 회답 만화들이 들어 왔습니다. 그 중

본지 七월호에 《만화 회답》이 나간후 독자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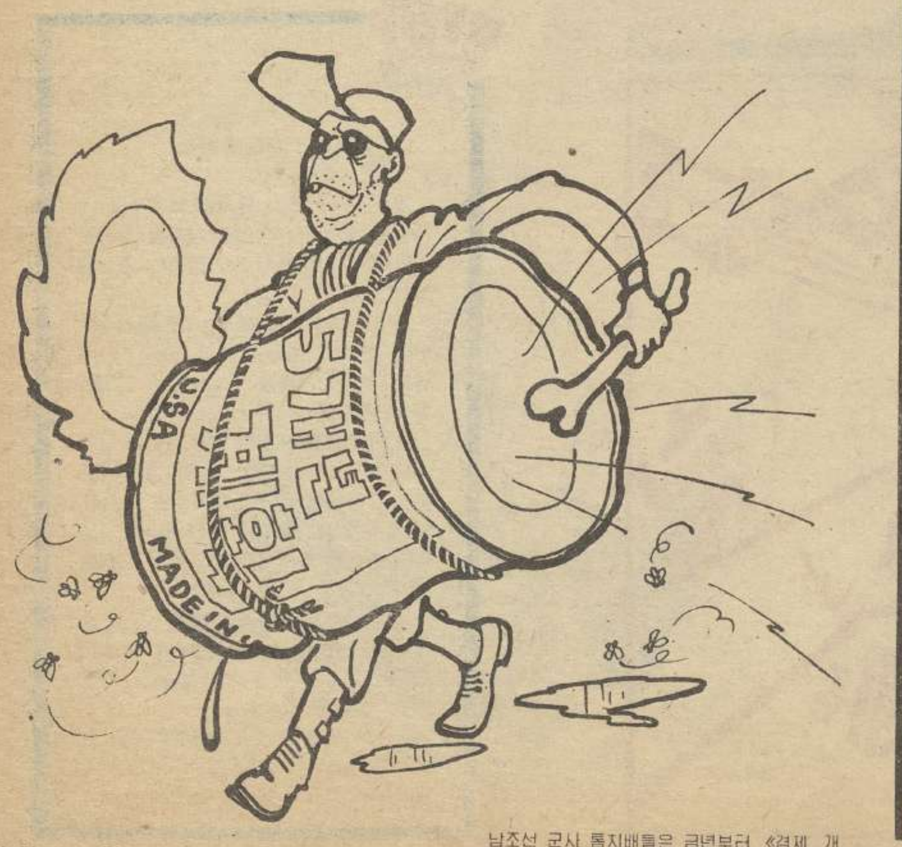
《조종사》



미제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 끌어 들여 군사 파쑈 도당과 결탁시킴으로써 자기들의 침략적 야망을 실현해 보려고 책동하고 있다.

박 승희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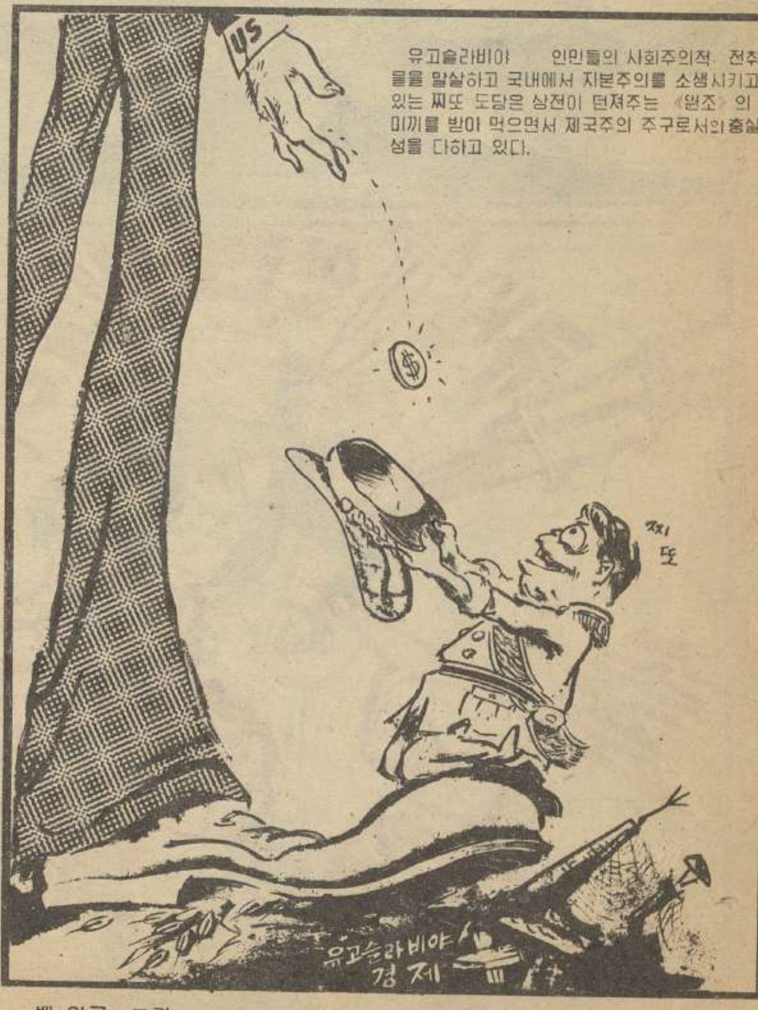
빈통이 소리는 더 크다



최 영근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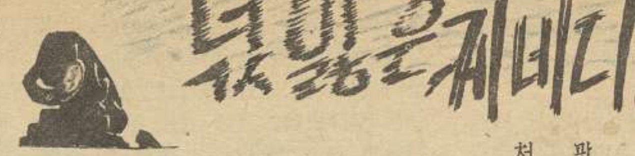
남조선 군사 통치배들은 금년부터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 을 실시한다고 요란스럽게 떠들어 왔으나 《건설》 은 고사하고 기왕에 있던 기업체들미저 계속 파산되고 있는 형편이다.

미제의 사환' 군



유고슬라비아 인민들의 사회주의적 전취물을 말살하고 국내에서 자본주의를 소생시키고 있는 찌또 도당은 상전이 던져주는 《원조》 의 미끼를 받아 먹으면서 제국주의 주구로서의 충실성을 다하고 있다.

백 인균 그림



넋잃은 케네디

천 광

케네디는 오늘도 초인종을 누르는 것으로 자기의 첫 사무를 시작했다.

비서가 방안으로 들어 왔다.

《부르셨습니까 각하?》

《1919년에 식민지들은 세계 인구의 69.2%, 령토의 77.2%를 차지하던 것이 현재는 불과 인구의 1.7%, 령토의 6.8%가 남았다는 건 오늘 아프리카에서 33 번째로 독립을 선포한 우간다를 포함한 수'자요?》

《포함 안된 수'자입니다. 각하!》

《우간다의 특산물로는 금, 주석, 탕그스텐, 코발트, 커피, 차 그게 다던가?》

《각하! 면화, 락화생, 사탕수수도 생산된다고 합니다》

《음… 괜찮은 땅'덩어리거든…》

케네디는 세계 지도 앞으로 갔다. 그의 눈은 우간다에서 옮겨지면서 아프리카 대륙을 훑어 나아갔다. 앙골라, 카메룬, 로데시아, 니아살랜드, 케니아… 케네디의 이마'살이 쭈그러 들었다. 그것은 이 나라 들에서 항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 번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케네디는 독이 오른 눈총을 이미 독립한 나라들에 돌렸다. 가나에서 시선을 멈춘 그는 화가 동해 지도에서 물러났다.

《가나 대통령 암살은 어떻게 되였는지 보고가 없는가?》

《실패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까뗌!… 빨리 우간다에 축전 치시오》

《예?》

《왜 머리가 돌지 않소. 아프리카는 미국에 막대한 리윤을 제공하는 황금의 지역으로 계속 남아 있어야 하오. 알겠소. 그것을 위해 우리의 평화군을 더 증강하려면 선손을 써야 한단 말이요.》

《알았습니다. 각하!》

비서는 나갔다.

이 때 전화벨이 울리자 케네디는 수화기를 들었다.

《라오스 대사라구? 어서 말하시오. 미군 물러 가라는 시위가 매일 일어나? 그래 미군에게 사복을 입히고 경제, 문화, 공보 기관의 사민 증명서를 주고 군용기들에는 민용 항공 회사의 표식을 갈아 달라는 걸 잊었는가? 그렇게 했어? 그럼 이젠 뻗치고 있으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면 돼! 그렇지 콩고의 경험을 참작해야지》

수화기를 놓은 케네디는 뒤'짐을 지고 방안을 돌다가 다시 세계 지도 앞에 가서 이번엔 라틴 아메리카의 나라들을 더듬어 보았다. 그는 이 지역의 철광은 거의 전부, 동광은 90%, 아연광은 3분의 2, 석유는 60%, 대외 무역은 50%가 미국에 장악되여 있고 또 교통, 운수, 농촌 경리가 막대한 리윤을 주는 미국의 오랜 《뒤'동산》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그런데 이 《뒤'동산》에서 최근 5~6 년간 친미 독재 정권이 13 개나 타도된 것이 케네디를 불안케 하였다. 아무리 보아도 베네주엘라, 과테말라, 콜롬비아, 파라과이, 에쿠아도르, 아르젠틴, 페루, 혼듀라스, 브라질… 반미 민족 해방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고 있는 이 나라들의 사태가 미국에 유리하게 변할 것 같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수록 케네디는 큐바 공화국이 더 미웠다. 케네디는 마음이 더욱 허전해짐을 느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미주 국가 기구》 외상 회의에서 혁명적 큐바를 압살해 보려고 케네디 자신이 출두했었으나 브라질, 칠리, 멕시코 등 여러 나라들이 응하지 않아 머리를 앓고 있는 데다가 영국까지 큐바를 봉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떠벌리고 있으니 믿을 곳이 없게 된 케네디가 마음이 허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거기다가 《진보를 위한 동맹》 계획을 선전하려고 라틴아메리카로 행각을 떠난 모스코스가 도처에서 배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만약 케네디가 알았다면 그는 기절하였을 것이지만 다행히도 아직 그 사실만은 모르고 있었다.

케네디는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나라들을 꼽아 보았다.

(앙골라, 카메룬, 로데시아, 니아살랜드 케니아… 이렇게 꼽다가는 6.8%라는 수'자가 아주 없어질 것이 아니겠는가? 과연 이 가재 걸음으로 줄어드는 수'자를 거북이 걸음으로 바꾸더라도 늘일 수 없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생각이 떠 오르지 않았다.

이 때 전화벨이 울렸다.

《남부 월남에서 소탕 작전이 성과적으로 …어떻게 뭐, 뭐? 성과적으로 진행될 번하다가 실패했어? 까뗌》

또 다른 전화벨이 울렸다.

《뭐? 무엇이? 평화군이 배격을 당하고 있다고?》

또 다른 전화벨이 울렸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창밖에서 웨침 소리가 들려 왔다. 그것은 인종주의의 종식을 위해, 큐바에 대한 미국의 침략을 반대하기 위해 시위에 떨쳐나선 미국 로동자들과 대학생들의 웨침 소리였다.

케네디가 화'김에 내동댕이친 수화기는 시계추처럼 흔들거리면서 다급한 말 소리를 전달하고 있었다.

《각하! 각하! 〈한일 회담〉을 반대하는 시위 대렬이 대사관으로 육박하고 있습니다. 각하! 듣고 계십니까 각하!》

케네디는 머리를 싸쥐였다.

여러 대의 전화는 연방 울리고 있었다. 그러나 케네디는 받을 념도 않고 있었다. 계속 울리는 전화벨 소리는 식민지 체계가 종국적으로 붕괴되고 있는 신호 소리로 들려왔기 때문에…

포위하려다가

포위 됐다

송 시엽 그림

만화 사진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란 제국주의 국가들에 예속되여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식민지 및 반식민지 국가들의 총체를 말한다.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는 19 세기 말에서 20 세기 초기에 걸쳐 제국주의자들이 약한 나라들을 무력으로써 강제로 예속시킨 결과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사회주의 체계가 형성되고 그 위력이 날로 장성 강화됨에 따라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는 위기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에 와서는 종국적으로 청산될 운명에 놓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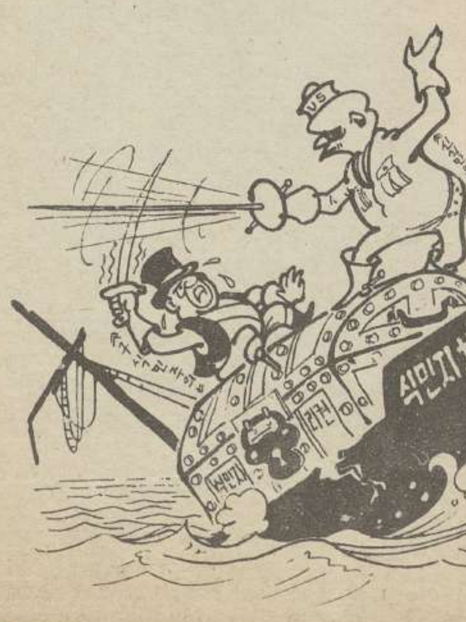
한때 식민지의 멍에를 벗지 못 한 예속 국가 인민들이 세계 인구의 4 분의 3을 이루었다면 오늘은 불과 2.8% 밖에 지나지 았는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40 개의 식민지 예속 국가들이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에서 벗어나 독립을 쟁취하였다

장성하는 위력 앞에서

송 시엽 그림

침몰하는 배 우에서



최 영근 그림

자본주의 세계 도처에서

백 인균 그림

《한일 회담》을 분쇄하자!

안 창수 그림

후 과

(미국에서)

최 영근 그림

편집 위원회

발행소: 군중 문화 출판사
인쇄소: 평양 종합 인쇄 공장
1962년11월 20일 발행

ㄱ—211416 값 40 전